



##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 브리감 영 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심포지움에 참석

한국 서울 스테이크 이 호남 부장은 교회 본부에서 개최되는 4월 연차 대회에 참석하고 4월 7일에는 브리감 영 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행사의 하나로 열린 "도전의 시대에 발전하는 교회"라는 주제의 심포지움에 참석하였다. "아시아 지역 회원이 본 교회 프로그램의 제 문제"라는 토론회에는 이 호남 서울 스테이크 부장, 어거스토 림 필리핀 마닐라 스테이크 부장, 일본 홋카이도의 국립 교육 대학교 조교수이며 삽보로 선교부장단 보좌인 세이찌 가다누마 형제, 브리감 영 대학교 역사 및 종교학과의 스펜서 제이 팔머 박사가 참석하여 주제를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 호남 부장은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발전과 한국의 전통적 문화가 갖는 관련성을 분석 발표하여 많은 호응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 국제 선교부 발족

국제 선교부는 정규 스테이크나 선교부가 조직되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을 책임지는 기구이다. 이러한 지역에 살고 있는 회원을 알고 계시면 다음 주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

INTERNATIONAL MISSION,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이와 같은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인 회원도 역시 같은 주소로 연락하여 교회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 유진 피 톨 선교부장, 교회 본부의 표창을 받음

최근 한국 서울 선교부의 유진 피 톨 선교부장은 공보 관계에서 탁월한 업적을 인정 받아 브리감 영 대학교 공보 상을 수상했다. 교회 본부에서는 그의 수상소식을 전화로 알려 왔고 후에 표창에 관한 본부측 서신도 받았다.

톨 선교부장은 한국 지역 대회에서 보인 탁월한 업적과 노래하는 선교사단인 뉴 호라이즌의 훌륭한 활동을 도와 수상하게 되었다. 그는 매스 미디어를 광범하게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선교 활동을 펴고 있다.

### 서울 선교부 새로운 필름스트립 "태일리와 더불어" 제작

한국 서울 선교부에서는 선교사들이 사용할 새로운 필름스트립을 제작하였다. 회원이 구도자를 소개하는데 큰 도움을 줄 "태일리와 더불어"라는 필름스트립은 누구든지 시간을 내기만 하면 선교사를 친구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각 선교사들이 회원의 가정을 찾아가 이 필름스트립을 보여주게 된다. 회원은 이들을 도와 친구가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 본 필름스트립의 취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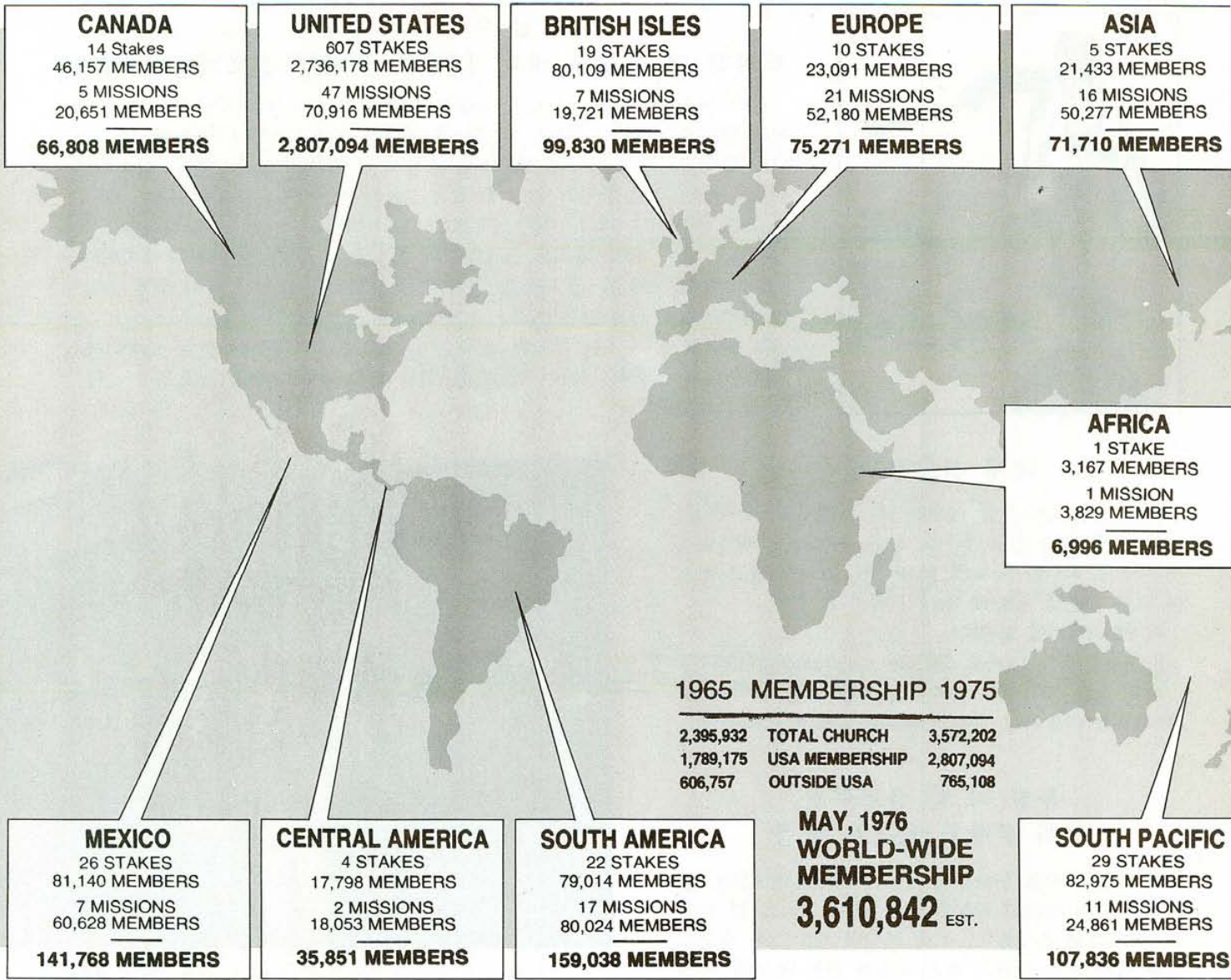
사진 좌로부터: 모리스, 허드, 팔머, 스타일즈, 헌터, 맥더글 장로님

### 외국인 웅변 대회

#### 모리스 장로 대통령 상 수상

코리아 헤럴드사에서 매년 외국 웅변 대회를 개최해 왔다. 이 대회는 선교사들이 한국어 실력을 과시해 온 좋은 기회가 되어왔다. 금년도 입상자 11명 중에서 6명이 물론 선교사였다. 켄트 모리스 장로는 "새마을 운동"이란 제목의 웅변으로 본 대회 최고 상인 대통령 상을 획득했으며, 그외에 5명이 입상을 하는 영광을 차지하였다. 입상자들은 청와대를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된다.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켄트 모리스 장로.....	대통령상
마이클 맥더글 장로.....	1 등
클레어 팔머 장로.....	2 등
존 헌터 장로.....	3 등
몬트 스타일즈 장로.....	특별상
리처드 허드 장로.....	장려상



## 끊임없는 교회의 성장

매일 와드 하나를 조직하기에 충분한 회원이 새로 침례받아 교회에 입교하고 있다.

1965년 당시 전세계의 교회 회원이 2,395,932명이었던 것이 1976년 현재 1,176,270명이 증가된 3,572,202명으로 밝혀져, 매일 평균 322명의 새로운 회원이 침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동안 출생율은 역시 1,000명을 기준으로 하여 27명을 약간 넘는 정도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1975년에 침례받은 어린이의 수는 50,263명이었으며, 이 수는 1965년도에 침례받은 어린이의 수 49,413명과 별 큰 차이가 없다.

작년 한해 동안 교회에 입교한 95,412명을 포함하여 침례받은 개종자의 수는 거의 배가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는 계속되어 금년에는 100,000명을 넘을 것

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의 총 회원의 수는 약 3,610,842명으로 추산된다.

증가되는 회원의 수와 발을 맞추어, 지난 10년 동안 전세계에는 333개의 새로운 스테이크가 조직되었고 1975년말 현재 전 세계에는 734개의 스테이크가 조직되어 있다.

같은 기간동안 매년 249개의 새로운 와드가 조직되어 현재는 2,493개의 와드가 된다.

1965년에는 한해 동안 13개의 새로운 스테이크가 조직되었던 것이, 1975년에는 68개의 스테이크가 새로이 조직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66개의 새로운 선교부가 조직되어 현재 134개의 선교부가 지상에 조직되었다.

현재 7개의 선교부를 갖고 있는 멕시코에서는 지난 3년 동안 49,660명의 개종자에게 침례를 주었다. 1973년에는 8개의 스테이크가 운영되던 것이 1975년에는 26개 스테이크로 그 수가 증가되었다. ➔

## 선교사들, 경주 방문

3월 30일, 31일, 그리고 4월 1일 3일간 서울과 부산 선교부의 선교사 전원이 경주에서 합동 모임을 가졌다. 3월 30일 문화의 밤을 필두로 막을 올린 이번 합동 모임은 이들간의 다양한 일정과 프로그램으로 참석한 모든 선교사의 마음에 깊은 간증과 열의를 심어 주었다. 한편 지역회원이며 태권도 사범인 김 정중 형제와 그의 수련생들이 태권도와 방아술의 훌륭한 시범을 보여주어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우리 민속의 일면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양 선교부의 낮은 얼굴들이 오래간만에 서로 만나 옛정을 새롭게 나누기도 했다. 다음날에는 각 선교부가 선교사들을 강화하고 격려하기 위해 따로 훈련 모임을 가졌다. 모든 모임을 마치고 선교사들은 각기 주님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임지로 돌아갔다.

## 부산 선교부, 울산 개척

1976년 3월 11일 제임스 트립, 마샬 스미스, 웬델 라슨, 그리고 데니스 보울러 장로 등 4명의 선교사가 최초로 인구 25만인 울산에 도착했다.

그들이 울산에 도착했을 때에는 복음 전도를 가능케 할 만한 아무 여건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아는 사람도 없었고 하숙 조차 구해놓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굳은 신념으로 노력하여 좋은 하숙을 구했고 조호 형제와 그의 가족, 강 은표 형제, 김 미경 자매 등 훌륭한 회원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의사, 은행장, 학교 교장 등을 방문하여 물문경을 소개했고, 울산 주위의 55개 공장도 방문하여 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들은 새로운 기대에 부풀어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 남 아메리카의 스테이크의 수는 1973년에 15개였던 것이 1975년에는 22개로 늘었다.

지난 3년 동안 영국에서는 28,192명이 침례받음으로써 급속적인 성장을 보였다. 1973년 이래, 아시아에서는 약 21,000명이 침례받았고, 남아메리카에서는 25,000명이 침례를 받았다.

미국에서는 47개의 선교부와 607개의 스테이크에서 활발한 선교 사업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개종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281,815명의 새로운 회원이 교회에 기록되었다. 현재의 미국의 교회 회원 총수는 2,807,094명에 달한다.

선교 사업에 보다 중점을 두면서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할 것이다. 김볼 대관장님께서 전 세계의 각지에 새로운 선교 사업의 기회를 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하도록 권고하셨다.



## 뉴호라이즌과 텐더 애플즈 진해 군항제에 참석

진해에서는 매년 벚꽃의 잔치인 군항제가 벌어진다. 아 벚꽃 잔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왔다. 한국 서울 선교부의 뉴 호라이즌과 텐더 애플즈는 매년 이때가 되면 그곳에 내려가 음악을 통해 교회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이들은 꽃차를 만들어 이동 무대로 삼았고 소형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공급했다. 그들은 이 꽃차 위에서 연주를 했고 군항제의 절정을 이루는 행렬에도 참석하였다. 군항제의 마지막 날인 4월 12일 밤 뉴 호라이즌과 텐더 애플즈는 2,500여명의 청중 앞에서 두 차례 연주를 했다.

## 연차 대회 중계 방송

1976년 4월 3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교회 연차 대회의 신권회 모임이 인공위성을 통해 신촌에 있는 신학 연구원에 중계방송되었다. 대회의 진행이 한국에 중계 방송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41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이를 지켜 보았는데, 대부분 미군 지방부 소속 회원이었으며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한국인 성도도 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본부에서 진행되는 신권회의 영적인 말씀을 들었다.

## 새로운 선교부 발족

최근 대관장단은 8개의 선교부가 새로 조직된다고 발표했다.

새로 조직될 선교부는 일본의 오카야마, 오키나와, 산살바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세빌리아, 스웨덴의 고테보그, 페루의 리마, 플로리다의 탐파, 그리고 영국의 맨체스터 선교부이다.

최근에 발표된 텍사스의 휴스턴, 캐나다의 위니펙, 타이완의 카오시웅 등 세 선교부와 새로운 8개의 선교부를 합치면 전세계 교회 선교부는 145개가 된다.